

제 3 회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원탁회의 「1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 전란에서 안정으로 –」

@제4회 아시아 미래 회의

趣 旨

동아시아에서 “역사 화해”의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다. 강화조약이나 공동성명에 의해 국가 간의 화해가 법적으로 성립되었다고 할지라도, 국민레벨의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진정한 국가 간의 화해는 요원하다. 역사가는 역사 화해에 어떻게 공헌 할 수 있을 것 인가. 1600년을 전후로 약 한 세기는 동아시아가 세 번째로 대규모의 전란에 직면한 시대였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시장이 세계로부터 끌어들이고 있던 은(銀)을, 조선에서 제련기술을 배운 일본이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구조 속에서 긴밀한 경제관계가 만들어졌다. 한편, 경제번영은 지역권 내의 여러 민족에게 정치적 패권을 차지하려는 욕망을 불러 일으켰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만주의 홍타이지에 의한 두 차례의 조선침략 및 만주족에 의한 중국에서의 청나라 건국이 그것이다. 경제에서의 상호의존성 심화와 각국의 패권쟁탈이 동시에 진행되며 만들어진 대규모의 전란, 그리고, 그 이후의 장기안정은 현대 동아시아에 깊은 자성을 불러온다. 다만 이번 회의의 목적은 어떠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입장에 따라 다양한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위에 “대화”에 의해 상호 이해를 심화시켜 가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원활한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어 ↔ 일본어, 일본어 ↔ 중국어, 중국어 ↔ 일본어 동시통역으로 진행한다. 원탁회의의 강연록은 SGRA 레포트로 작성해 3개국어로 발행하고 SGRA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The 4th ASIA FUTURE CONFERENCE



일 시

2018년 8월 24일(금) ~ 8월 28일(화)

장 소

대한민국 서울 The-K호텔 3F Geomungo B

和解

【기초강연】

조 광 (대한민국 국사 편찬 위원회 위원장) 「17세기 동아시아 역사의 전개와 특성
-한국사의 흐름을 17세기의 세계사 속에서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연구발표】

일본	아라키 카즈노리	Araki Kazunori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임진전쟁」의 강화교섭
일본	스즈키 카이	Suzuki Kai	동경대학	「호란」 연구의 주의점
일본	마키하라 시게요키	Makihara Shigeyuki	동경대학	일본의 근세화와 토지·상업·군사
한국	최 영창	Choi Youngchang	국립진주박물관	한국에서 바라보는 임진왜란
한국	허 태구	Huh Taekoo	카톨릭대학	禮의 窓으로 다시 바라본 병자호란
한국	최 주희	Choi Joohee	국학진흥원	17세기 전반 唐糧의 운영과 국가의 재정부담
중국	자오 이펑	Zhao Yifeng	동북사범대학	한중관계의 특징과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연동
중국	치 메이치	Qi Meiqin	인민대학청사연구소, 「청사연구」 편집장	라마교와 17세기 동아시아 정국
중국	정 지에서	Zheng Jiexi	닝보대학인문학원	기만인가, 타협인가 - 임진왜란기의 외교교섭

프로그램 세부사항 : <http://www.aisf.or.jp/sgra/research/kokushi/2018/10227/>



주 최 : 아쓰미 국제교류재단 글로벌 연구회(SGRA)

주 최 : 과학연구비 신영역연구 「화해학의 창성」, 와세다대학 동아시아 국제관계 연구소, 서울대학 일본연구소

조 성 : 동경클럽(東京俱樂部)

문의처:
東京都文京区関口 3-5-8
渥美国際交流財団関口グローバル研究会 (SGRA)
e-mail : sgra.office@aisf.or.jp



<주요 회원>

- ① 거자오 광 (중국 푸단대학)
- ② 조 광 (한국 국사 편찬 위원장 · 고려대학 명예교수)
- ③ 미타니 히로시 (일본 아토미학원여자대학 · 동경대학 명예교수)
- ④ 유 겐 (일본 와세다 대학)

第3回「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 円卓会議「17世紀東アジアの国際関係ー戦乱から安定へー」

@第4回アジア未来会議

趣 旨

東アジアにおいて「歴史和解」の問題は依然大きな課題として残されている。講和条約や共同声明によって国家間の和解が法的に成立しても、国民レベルの和解が進まないため、真の国家間の和解は覚束ない。歴史家は歴史和解にどのような貢献ができるのだろうか。1600年を挟む約1世紀は東アジアが3度目の大規模な戦乱に直面した時代であった。東アジアには中国市場が世界に求めていた銀を朝鮮から製錬技術を学んだ日本が大量に供給したことを一因として緊密な経済関係が生まれる一方、経済繁栄は域内の諸民族に政治的覇権への欲望も生み出した。日本の豊臣秀吉と満洲のホンタイジによる各2度の朝鮮侵攻および満洲族による中国での清朝の創立である。経済の相互依存の深まりと各国の覇権争奪の同時進行が生んだ大規模な戦乱、およびその後の長期安定は、現代の東アジアに対して深い自省を促すことであろう。ただし、この会議の目的は何らかの合意を得ることにはない。立場によりさまざまな歴史があることを確認した上で、「対話」により相互の理解を深めてゆくのが目的である。

《日・中・韓同時通訳付き》

The 4th ASIA FUTURE CONFERENCE



日 時

2018年 8月 24日(金) ~ 8月 28日(火)

会 場

韓国ソウル市Kホテル 3F Geomungo B

和解

【基調講演】

趙 珖（韓国国史編纂委員長）「17世紀東アジア史の展開と特性
—韓国史の展開を17世紀の世界史の中でどのように眺めるか」

【研究発表】

日本	荒木 和憲	Araki Kazunori	国立歴史民俗博物館	「壬辰戦争」の講和交渉
日本	鈴木 開	Suzuki Kai	東京大学	「胡乱」研究の注意点
日本	牧原 成征	Makihara Shigeyuki	東京大学	日本の近世化と土地・商業・軍事
韓国	崔 永昌	Choi Youngchang	国立晋州博物館	韓国から見た壬辰倭乱
韓国	許 泰玖	Huh Taekoo	カトリック大学校	「礼」の視座から見直した丙子胡乱
韓国	崔 姪姫	Choi Joohee	国学振興院	17世紀前半の唐糧の運営と国家の財政負担
中国	趙 軼峰	Zhao Yifeng	東北師範大学	中朝関係の特徴および東アジア国際秩序との繋がり
中国	祁 美琴	Qi Meiqin	人民大学清史研究所、 『清史研究』編集長	ラマ教と17世紀の東アジア政局
中国	鄭 潔西	Zheng Jiexi	寧波大学人文学院	欺瞞か妥協か——壬辰倭乱期の外交交渉

プログラム詳細：<http://www.aisf.or.jp/sgra/research/kokushi/2018/10227/>

主催：渥美国際交流財団関口グローバル研究会（SGRA）

共催：科学研究費新領域研究「和解学の創成」、早稲田大学東アジア国際関係研究所、ソウル大学日本研究所

助成：東京倶楽部

問い合わせ：

東京都文京区関口3-5-8

渥美国際交流財団関口グローバル研究会（SGRA）

e-mail：sgra.office@aisf.or.jp



<コア・メンバー>

- ① 葛兆光（復旦大学）
- ② 趙珖（韓国国史編纂委員長・高麗大学名誉教授）
- ③ 三谷博（跡見学園女子大学・東京大学名誉教授）
- ④ 劉傑（早稲田大学）

第 3 次“日本·中国·韩国国史对话的可能性”圆桌会议 “十七世纪东亚国际关系——由乱转治——”

@第 4 届亚洲未来会议

论坛主旨

在东亚地区，“历史和解”问题作为一个重大课题依然没有得到解决。通过和约与联合声明，国家间的和解可以在法律层面得以成立。然而，在国民层面，和解却举步维艰。因此，这种状态很难说达到了真正的国家间的和解。历史学家们能够为历史和解做出怎样的贡献呢？

以公元1600年为节点的一百年，是东亚第三次陷入政局动荡的年代。一方面，明朝大力撒网全球以寻求的白银资源这一难题被日本所化解（日本从朝鲜吸取银冶炼技术，生产量大幅度提高），东亚经济交流日益紧密；另一方面，经济腾飞又催生出东亚各民族对政治霸权的诉求，即日本的丰臣秀吉和满清皇太极前后策动的朝鲜入侵，以及满清入关。经济领域相互依存和各国争霸的同时进行所带来的大规模战乱，以及接踵而来的长期稳定对现代东亚来说也具有深刻的反省意义。

《日·中·韩同声传译》

The 4th ASIA FUTURE CONFERENCE



时间

2018年8月24日（星期五）~ 28日（星期二）

会场

韩国首尔K酒店 3楼 Geomungo B

和解

【基调演讲】

赵 珖 (韩国国史编纂委员长) 「十七世纪东亚史的展开与特点
—如何看待在十七世纪世界史框架中的韩国史走向」

【研究发表】

日本	荒木 和宪	Araki Kazunori	国立历史民俗博物馆	“壬辰战争”的讲和交涉
日本	铃木 开	Suzuki Kai	东京大学	“胡乱”研究的注意点
日本	牧原 城征	Makihara Shigeyuki	东京大学	日本的近世化与土地·商业·军事
韩国	崔 永昌	Choi Youngchang	国立晋州博物馆	从韩国的立场来看壬辰倭乱
韩国	许 泰玖	Huh Taekoo	天主教大学	从“礼”再考丙子胡乱
韩国	崔 姪姬	Choi Joohee	国学振兴院	17世纪前半唐粮管理与国家财政负担
中国	赵 轶峰	Zhao Yifeng	东北师范大学	清代中朝关系特点与“东亚”秩序格局
中国	祁 美琴	Qi Meiqin	人民大学清史研究所、 《清史研究》主编	喇嘛教与十七世纪的东亚政局
中国	郑 洁西	Zheng Jiexi	宁波大学人文学院	欺瞒还是妥协：壬辰倭乱期间的外交交涉

会议详情：<http://www.aisf.or.jp/sgra/research/kokushi/2018/10227/>



主 办： 渥美国际交流财团关口全球研究会 (SGRA)

协 办： 科学研究费新领域研究“和解学的创成”、早稻田大学东亚国际关系研究所、首尔大学日本研究所

赞 助： 东京俱乐部

联系方法：

東京都文京区関口3 - 5 - 8

渥美国际交流财团关口全球研究会 (SGRA)

e-mail : sgra.office@aisf.or.jp



<核心成员>

- ①葛兆光(复旦大学)
- ②赵珖(韩国国史编纂委员长、高丽大学名誉教授)
- ③三谷博(迹见学园女子大学、东京大学名誉教授)
- ④刘杰(早稻田大学)